욱일기와 일장기

1. 욱일기

개요: 구 일본군 및 현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기(軍旗)로, 일본제국 해군에서 해군기(naval ensign)로 사용했기 때문에 '군함기'(軍艦旗)라고 불렸고, 해상자위대에서는 '자위함기'(自衛艦旗)라고 부른다. 일본 제국의 국기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본 제국의 공식 국기는 엄연히 일장기였다. 일본 제국의 침략과 착취를 겪은 태평양 제도의 국가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는 알고 사용했을 시는 말할 것도 없고 멋모르고 사용했을 경우에도 엄청난 비판을 받는다. 일본 극우세력의 행진에서도 사용되는 만큼, 일본 극우세력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기원: 욱일기의 원 중앙은 '일장'이라 하고 외곽으로 뻗은 선은 '욱광'(旭光)이라 하며, 욱광이 펼쳐지는 디자인은 옛날부터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쓰였다.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전통적으로 쓰여오던 욱광 문양을 응용해 욱일기를 만들었고 이를 자신들의 군대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1870년 일본 육군의 군기로 지정되었고 이후 1889년 일본 해군에서도 쓰이기 시작, 그리고 일제가 차츰 군국주의로 치달으면서 군부가 비대해지면서 욱일기의 사용빈도도 늘어났고, 많은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사용되었고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에서도 사용되며 일본군을 상징하는 깃발로 자리잡게 된다. 이 시기 일본 제국은 많은 전쟁을 일으켰고 자연스럽게 빈번히 사용하게 됐는데, 이러한 이유로 주변국에게 일본 제국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상징성: 일본 제국 군부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본군을 상징하던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국들에게는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문제시되고 있다. 욱일기는 2차세계대전의 추축국, 그 당시의 전쟁범죄, 식민지배, 과거로 부터 사용되어오던 군대의 상징,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극우파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2.일장기

개요: 과거 일본 제국과 현재 일본의 국기이다. 일본어로는 '닛쇼-키'라고 읽지만, 일본인들은 보통 '히노마루(日の丸)'라고 부른다. 흰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 하나라는 워낙 단순한 모양새라 국기들 중에서도 매우 그리기 쉽다.

역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700년대부터 사용하였다고 한다. 동그라미 하나라는 모양새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지만, 그때는 화려한 붉은색 비단에 노란색 또는 금색으로 원이나 국화 문장을 그려 '니시키노미하타(錦の御旗)'라고 부르며 일본 조정을 상징하는 깃발로 사용하였다. 비단도 단순히 붉은색으로만 물들이지 않고 이런저런 문양을 넣은 고급품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겐페이 전쟁에서 양 진영의 깃발색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재처럼 흰 바탕에 붉은 동그라미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무로마치 말기로, 외국 교역선에 국가 표시는 해야겠는데 당시 제일 싼 염료가 붉은색이라 붉은색 동그라미를 배에 찍었다는 실용적이긴 한데 멋없는 사연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현재 한국에서의 입장: 과거 일본이 저지른 여러 만행으로 인한 반일(反日) 시위 등이 날 때마다 불에 타거나 찢겨지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국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장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님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 주위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3. 각종 문화에서의 욱일기와 일장기

의도치는 않았어도, 예컨대 단순히 후광효과였어도 종종 욱일기를 그렸다는 식으로 오해가 생기곤 한다. 이는 일제의 수탈을 받았던 국가의 사람들에게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와 극우주의를 상징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에는 그런 요소를 주로 애니메이션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이 그런 예이다.

◦명탐정 코난 절해의 탐정: 애초에 작중 배경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다. 그런 이유로 다른 극장판들과는 다르게 국내 개봉이 불발되었다.

•개구리 중사 케로로: 애니메이션 한정, 2기 오프닝에 등장. 한국에 방영할 때는 대충 지구 그림으로 덮어 씌웠다.

•원피스: 신세계 돌입편에서 브룩이 사무라이에 대해 설명하는 배경에 욱일기가 깔려서 까였다. 그런데 사실 작중 원피스 내에서 욱일기가 그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하늘섬 편에서나 듀발의 부하중 한명의 모자, 임펠 다운의 미노코알라의 바지 등에도 그려져 있었다.